

더위 피하려다 불난다… 냉방기 화재 주의보

최근 3년 광주·전남 선풍기·에어컨 화재 125건

소방당국 “주기적 점검·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냉방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 화재는 총 125건(광주 59건·전남 6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4건(광주 15건·전남 19건), 2023년 30건(광주 13건·전남 17건), 지난해 61건(광주 31건·전남 3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5억 7340여만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2022년 371건, 2023년 395건, 지난해에는 530건 등 해마다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20일 오후 4시19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한방병원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벽걸이 에어컨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해 1월24일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 2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 소방관 4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주택 1층 내부 38㎡를 태우고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

로 80대 노부부가 숨졌다.

당국은 주택 1층 작은방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여름철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과 과열, 과부하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관련 화재는 여름철 냉방기기 가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외부에 노출된 실외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과열이나 과부하가 생기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제습기 사용량이 증가해 전기 화재가 일어나거나 제습기 위에 젖은 빨래를 말리게 되면서 누전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당국 등은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 시 전선 훼손 여부 확인, 실외기 주변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선풍기의 경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체에 놓이거나 선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이나 수건을 덮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소방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여름철, 생활 속 전기안전수칙 실천이 곧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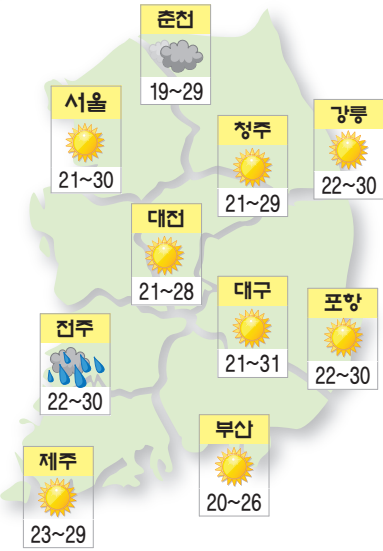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SOCIETY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18 달출 ---:--
☁️ 예보 19:49 달진 10:43



광주	☀️	21~31
목포	☀️	21~27
여수	☀️	21~27
순천	☀️	20~30
구례	☀️	20~31
광주	☀️	21~28
해남	☀️	21~28
진남	☀️	19~26
고흥	☀️	19~29
진도	☀️	20~27

목포	밀물(고)	06:11 / 18:17
	썰물(저)	11:30 / 23:32
여수	밀물(고)	00:47 / 13:02
	썰물(저)	07:04 / 18:55

위장 전입 주택 청약자 벌금형

만년필 에 위장 전입한 뒤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공급 받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재판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 친아버지의 자택인 광주 서구 한상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뒤 주택 청약으로 사구 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광주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자 이런 변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김지연 재판장은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방백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다수의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남구 양림동서 ‘첫발’

20일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전국 8개 지자체 참여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개신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 김제시까지 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성격의 기구이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양림동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아시아 지역의 개신교 선교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고, 전국 각지의 선교기지가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협의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유네스코 세

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각 지역의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마치기로 했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서울과 광주, 공주, 전주 등 전국 8곳의 선교기지와 더불어 교육 선교와 복음 전도를 공통점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의료 선교를 통한 결핵과 나병환자 치료는 양림동만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결론지었다.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오랜기념과 구원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수피아 홀과 커티스메모리얼 홀, 윈스보로 우홀, 수피아여고 소강당 등 7곳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영산강청, 장마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빗물받이 청소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이 16일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를 대비해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인 구례읍 봉동리를 방문, 하수관로 준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시민 불편 가중

노사협상 진전 없어…시, 임차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

“버스 파업으로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로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광주시가 운행할이 떨어지는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에 불만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시민들은 버스도착예정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과 함께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승객들은 버스 노선표를 놓여지듯이 들여다본 뒤 목격지 인근으로 향하는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성급히 올라타기도 했다.

또 버스도착 예정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뒤늦게 택시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회사까지 동승을 요청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출근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이 물리면

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파업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주성씨(30)는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버스 파업이 당혹스러울 뿐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생은 매일 택시로 등교하고 있다”며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 같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전세버스 60여대(20개 회사)를 확보해 운행률이 저조한 2개 노선(순환01·봉선37)에 전세버스6대를 투입하고 도시철도를 12회 증편 운행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방문의 해…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은?

광주 동구·관광숙박업소 간담회

임택 청장 주재…호텔 아트하임 등 관계자 20명 참가

원스톱 관광 청사진 제시…‘동구칠성’ 등 콘텐츠 논의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와 역사, 예술, 자연경관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시관광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호텔 아트하임 등 지역 관광숙박업소가 체류형 생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

광주 동구는 16일 청사 3층 상황실에

서 관광숙박업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 동구청장과 ㈜호텔 아트하임(대표이사 전유태), 컬처호텔 람(대표 서동균)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관광 추진 현황 소개, 건의사항 청취·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정책 공유와 스마트관광 플랫폼 ‘광주 아트패스(Artpass)’ 홍보·가맹 안내를 논의했다.

특히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중광장, 동명동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정보 연계 부족, 교통·주차 혼잡 등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관광숙박업소 관계자들은 투숙객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대인아시장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예술의 거리 북카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체류형 관광상품 기



광주 동구는 16일 청사에서 체류형 생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업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획·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대인아시장은 연계·프로모션, 홍보·마케팅 지원, 예술의 거리 일대 도로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자연과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심에서 관광을 즐기는 원스톱 관광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동구는 도심 속 체류형 예술여행 도시 구현과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만

들기 위해 ‘3대 권역’, ‘동구칠성’ 등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3대 권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무등산·지산유원지로, 모두 야간관광과 자연관광, 인문관광을 할 수 있다.

ACC 권역은 전일빌딩, 인문학당, 광주극장, 여행자의 집, 무등산 권역은 의재미술관, 지산유원지는 시인 문병란의 집 등 10대 관광 명소로 구분됐다.

동구는 7개의 명소와 즐길 거리를 7가지 무지개 색으로 나눠 골목여행 코스 ‘동구칠성(컬러풀스타로드)’을 구축·운영한다. 동구칠성은 ‘추억의 별(충장로)’, ‘오월의 별(충정로)’, ‘요즘 뜨는 별(동명동)’, ‘밤의 별(금남로)’, ‘인문의 별(지산동)’, ‘무등의 별(무등산)’, ‘내안의 예술별(무등산)’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1월 호텔 아트하임, 무등파크관광호텔, 라마다프라자 충장호텔, ACC디자인호텔, 컬처호텔 람 등과 체류형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호텔 아트하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명소인 동명동, 양림동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회, 커피숍 등 특색 있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